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심포지움 Review

일시: 2010년 5월 12일(수) 9:00-5:20

장소: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일반 관심자 등 90여명

오전세션

인사말

UNGC 한국협회 이승한 회장(사무총장 대독)

한국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환경,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인 이슈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반부패 분야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음. 이제 우리국민은 기업이 반부패 드라이브를 끌고 나갈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외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해 발표함으로써, 국내기업들에게 윤리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경영을 해나가도록 도와 나가겠음.

축사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주최하는 반부패 심포지움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부패문제 때문임.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깨끗함이 자산이 되어야함. UNGC가 표방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문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개선해야할 문제이고, 그 중 반부패는 선진국을 향해가는 핵심적 역량임. 부패 문제는 잉크를 조금만 떨어뜨려도 맑은 물이 검게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 한사람의 공무원 비리는 전체 공무원이 검게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강하게 부패방지의 시동을 걸고 있음.

2010년도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

국민권익위원회 박성권 부패방지국장

청렴은 21세기 국가 발전의 동력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임. 국가 청렴도와 국민소득과의 관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우리 나라 청렴도는 180개국 중 39위에 머물고 있고, OECD 국가 30개 중 22위로 경제 성장도 대비 낮은 수준임.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부패의 개념이 과거 뇌물만에서 불공정, 불투명, 온정, 연고 등



으로 확대됨. 국제적 환경 또한 UNGC, ISO 26000 같은 글로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부패문제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국제반부패 논의 1: 2009 UNCAC 회의 설명과 전망 등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국제사회에서 부패문제 이슈 특히 미국에서 해외부패관행법은 워터게이트 등의 사건으로 불거졌음.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FCPA), TI(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뇌물공여지수(CPI),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제10 원칙과 같은 국제 반부패 지수 및 협약들이 자세히 설명함.

부패의 개념이 과거 공공부문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적 영역과 합법적인 부패, 간접적 부패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확장됨. 부패논의에 통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의식과 문화 개혁까지도 포함한 개혁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국제반부패 논의 2: UNGC 반부패 원칙 및 국제동향 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패방지 강조 영상 소개)

국제적으로 유엔, 정부, NGO와 기업이 손잡고 바람직한 세계질서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시대가 됨(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마약기구, OECD, ICCI, WEF 등). 유엔 반부패협약은 정부의 의무 이외로 협약 도처에 기업의 반부패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반부패 활동은 특히 COP(이행성과보고서)에 부패방지 부문 활동 포함을 중시함.

최근 UNPRI의 국제대형투자자들은 14개국 20여개 회사를 지적하며, 각사의 부패리스크 개선을 촉구한 것이 주목됨. 오늘 배포한 자료는 반부패 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의 공동 프로젝트로 2009년 발간된 Resist(조달상의 부패 대항) 책자로서, 기업이 고객, 사업관계자, 공무원 등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에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며 윤리적으로 대응하고 싸울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함. 우리협회는 오늘 설명하는 UNGC 반부패 원칙 보고 지침, 공급망 관리 지침을 번역, 제공할 것임.

국내기업의 반부패 추진 현황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를 무서워하기보다 윤리가 고마운 시대가 되어야함. 가장 좋은 윤리경영 방법은 상시적인 고발과 진단 시스템을 작동시켜 사회 감시체제를 강화해야함. SRI 펀드, DJSI의 수익률을 보면 윤리, 사회, 환경을 고려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떳떳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분식회계, 뇌물과 같은 고질적인 폐해를 청산해야함. 또한 기업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국내 기업의 반부패 추진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Risk assessment의 맵을 잘 분석하고 현재 회사가 처한 환경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를 잘 이행했느냐가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이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좋은 제도를 개발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실무 그룹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한 사례로 도요타는 기업 내에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 제도 결정론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오전 패널토의

오필환 교수: 국제적 노력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국내적 노력은 아직 미진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갖게 됨. 국내적 노력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부패의 개념이 단순한 증뢰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까지로 확대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넓은 의미의 부패임. GDP의 25%를 차지하는 지하경제가 시장에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청중 질문: 기업과 개인의 책임의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김거성 회장: 기업과 개인의 책임 분리란 회사가 뇌물방지 경영을 위한 가능한 범위내의 노력(due diligence: 상당한 주의의무)을 다 했을 때는 회사의 책임과 분리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임. 궁극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도덕성, 윤리의식 제고와 기관의 거거버넌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청중 질문: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 향상이 신용평가기관과 고위 공무원의 인맥에 기인했다는 기사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

주철기 사무총장: 신용평가기관이 판정한 국가 신용도가 공무원의 인맥에 따라 평가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대외기관 인사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노력은 긍정적임. 인맥보다는 공식적인 조치(브리핑)등을 성공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것이 바람직함. 문화가 중요함. 부패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사회적 문화를 개선해야 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점차 바꾸어 가야함.

이종욱 교수: 관료, 기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라 생각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러한 보도 이전에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절차, 기준에 대한 공개도 선행되어야 함.

오후세션



Compliance as a global approach

Dietmar Balschukat, Evonik Degussa Reion Korea 대표이사

준법이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며 회사 운영의 기초임. 에보닉의 준법프로그램은 방지(prevent), 감시(protect), 조치(act)를 축으로 구성됨. 에보닉은 자체의 행동규범뿐만 아니라 글로벌콤팩트와 같은 다른 국제적인 기준도 따름. 매년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E-러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직원잡지 및 인터넷을 통해 준법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에보닉은 부패영역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행동강령을 제시하며 투명성 확보, 교육, 순환보직, 감사제도, 자체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부패방지는 단순히 기업만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행위임.

한국전력

감사실 청렴윤리팀 이원정 차장

200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였으나 부단한 노력으로 2008년에는 474개 기관 중 외부청렴도 1위를 차지함. 자체 청렴도 조사, 간부청렴도 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

청렴T/F라는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연구비 성공카드제 도입', 반부패 우수 사례집을 출판하여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외에도 홍보 및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음.

안철수연구소

박근우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주요 대기업을 제치고 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윤리투명 경영 관련 주요 상을 모두 수상한 바 있음. 사내에서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로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음. 이러한 시작은 CEO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출발하는데 학연, 지연, 학벌을 배제하고, 인성, 전문성, Teamwork(소통)에 비중 있는 인재 구성도 그 한 부분임. 타 기업에 비해 윤리경영의 체계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사내 분위기 자체가 규범적이고 사회공헌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음. 사내 각종 온라인 소통 도구 예를 들어 사내 사이버망,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내부 소통에 힘씀.

GE Korea

권재용 변호사, Compliance Officer

GE의 준법 프로그램은 우선 국제적인 준법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내 준법 문화를 형성하여 위법적인 문제를 방지, 조기발견, 대응하는 것이 목적임. 첫째, 기업의 고위층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후에 리스크, 훈련, 커뮤니케이션, 평가, 보고



등의 5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실행함. 준법관련 책자는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음. 옴부즈맨 제도는 준법 사항과 관련한 질의나 위법사항에 관한 행동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해줌. 전 세계에 약 600명의 회사내 옴부즈맨이 있고 국내에도 13명이 있음. 한국문화와의 마찰이 있었지만 노력여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함. 옴부즈맨 제도는 크게 6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제대로 된 실행을 위해선 사내 교육이 중요함.

Intel

John E. Matheson Director of Legal Policy, Asia Pacific for Intel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CEO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함. 자사는 직원들이 반부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중간 관리직이 부패를 방지 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자사내의 사례공유를 통해 하위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혹시 일어날수 있는 부패 사례를 사내 전직원과 공유하며 대처와 해결에 있어 직원간 피드백이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OECD 뇌물방지협약과 비슷한 미국 해외 관행법을 명분으로 삼아 다국적 직원들이 부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텔사는 가장 윤리적인 회사 1위로 등극하기 위해 더욱 노력의 박차를 가할 것임.

Siemens Korea

Florian Stuerwald, 준법감시인

지멘스는 '06~07년도 뇌물 스캔들이 터진이후 CEO를 교체하여 강한 준법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우선 흩어졌던 계좌를 한곳에 모아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기 시작하였음. 또 독립된 준법감시팀을 운영하고, 190여개 국가, NGO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지멘스 코리아는 1500명의 직원 가운데 900명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세계적으로 600여명이 준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준법활동의 장려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15년동안 1억달러를 투자를 할 계획임.

오후 패널 토의

장지인(좌장): 한국의 경우 경쟁력 지수와 투명성 지수 간에 불일치 현상이 심각. 투명성의 문제는 국제 무역거래시 커다란 장애물임. 각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토의바람.

곽정수 기자(한겨레):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반부패 정책을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실행에 있어 문제가 많음. 내용과 실제에 있어 차이가 큼. 또한 개인의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회사 전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적임. 기업에 대한 특혜가 남아있기 때문임. 국민들의 친기업 정서 역시 이를 조장하고 있음.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글로벌 콤팩트 가입 확대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장려하고 촉진시켜야 함.



이원정(한전): 공기업의 경우 평가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히 보고서 역시 이행내용 보다 형식적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 기업들의 체계적인 반부패 노력에 감명을 받았음. 앞으로 보다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부패 확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함.

박근우(안철수 연구소): 법 질서를 잘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함.

청중 질문 1 : CEO는 사회적 지위상 부패의 위협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데, 해외기업의 경우 CEO의 부패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Matheson(인텔): 중요한 것은 부패는 좋지 않다라는 인식의 공유임. CEO들의 부정부패 사례는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임.

Stuerwald(지멘스): 지멘스의 경우 총괄 CEO가 부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 이를 방치하고 제때 감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임해야 했던 경험이 있음. 그러나 CEO라고 해서 특별히 부패의 위협에 깊이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음.

청중 질문 2 : 조직의 부패와 개인의 부패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 해외의 경우 비슷한 경험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Stuerwald(지멘스): 부정부패에 적발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 변명은 모두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잘못된 변명임. 어떠한 형태의 부정부패 이건 그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Matheson(인텔): 지멘스와 같은 입장임. 이것은 회사를 위했다기 보다는 회사의 자본을 도둑질한 것임. 이러한 차원의 도덕 불감, 비윤리적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주철기 사무총장: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 내실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에 이해가 감. 형식보다는 본질에 맞춘 노력을 해야 함. 최근 씨티 은행의 UNGC 가입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준법준수가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함. 최근 우리나라 역시 절박함을 느끼고 부패방지에 앞장서고 있음. 중간 관리직이 반부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노력해주길 바람.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패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에 상당히 공감하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대화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함.

장지인 교수: 최근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이 정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지속가능보고서의 유용성의 문제가 제기됨. 유용성의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열의가 떨어진 원인으로 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크게 2가지임. 법으로 명문화해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시장의 힘으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임. 하지만 한국에서 이는 어려운 현실이었으며,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지금, 시장 차원



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결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금번 반부패 심포지움은 정부 및 기업, 학계와 언론 등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부패방지과 기업의 대응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사 및 일반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제공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07년 설립된 후, 지난 3년간 반부패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해왔음. 금번 심포지움도 한국사회내 잔존한 부패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 차원의 부패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됨.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원칙 중 부패방지 문제를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음. 반부패 문화는 기업들의 진정한 지속 성장과 사회 책임 추진을 위한 바탕이자 근간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협회는 계속해서 반부패 관련 세계 동향을 수시로 소개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해 발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윤리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경영을 해나가도록 도울 계획임. 부패 근절이 곧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데, 참여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반부패 문화의 확산 및 적극적 대응에 대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에 금번 심포지움의 의미가 있음.

-끝-